

2011학년도 중앙대학교

수시 2차 논술 문제지 (인문계열 II)

대학		학 과 (학부·계열)		수험 번호		성명	
----	--	----------------	--	----------	--	----	--

◆ 답안 작성 시 유의 사항 ◆

- 문제지는 표지를 제외하고 모두 5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연습지가 필요한 경우 문제지의 여백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답안지의 수험번호 및 인적사항은 반드시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으로 표기하시고 답안은 흑색 필기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답안은 원고지 작성법에 따라 써야합니다.(숫자나 수식, 표 등은 예외)
- 주어진 답안 작성 분량을 지키고(띄어쓰기 포함) 답안지는 한 장만 사용가능합니다.
- 답과 관련된 내용 이외의 내용은 작성하실 수 없습니다.
- 답안은 반드시 문항 별 지정된 구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작성하셔야 합니다.
※ 지정된 구역을 벗어난 답안은 채점이 불가능함



2011학년도 중앙대학교 수시 2차 논술 문제지 (인문계열 II)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괴벨스는 다시 민족 활동의 날 준비에 몰두했다. 그날은 선전 선동이 거창한 승리를 거두는 날이 되어야 했다. 수십만 명이 대형 깃발들로 장식된 거대한 무대 앞에 운집해, 격문과 노래와 놀이가 있는 그 엄청난 구경거리와 총통의 연설을 지켜보았다. 초대된 외교사절 중 한 사람인 프랑스 대사 앙드레 프랑수와 풍세는 당시 풍경을 다음처럼 묘사했다. “괴벨스가 몇 마디를 늘어놓고 난 후, 총통은 연단에 올라섰다. 모든 탐조등이 꺼지고 단 하나의 탐조등만이 총통을 휘황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마치 동화 속의 배가 군중의 물결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교회와 같은 정적이 감돌았다.”

최초의 노동자 국경일의 대미를 장식한 것은 거대한 규모의 불꽃놀이였고, 그 중에서도 절정은 벵골 꽃불로 찬연하게 빛나는 총통의 대형 초상화였다. 불꽃놀이가 끝나자 괴벨스도 자신이 연출하여 백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참가한 그 거대한 행사에 감격했다. 괴벨스는 시민들이 이제 온 가족이 함께, 노동자도 부르주아도 상류층도 하류층도 사업가도 부하직원도 몽땅 길거리로 나와 열광했다고 적었다. 사람들은 엄청난 열기에 도취했고 형언할 수 없는 환호로 화답했다. 호르스트 베셀의 노래 ‘깃발을 높이 들어라’는 가없는 저녁 하늘로 경건하고 강렬하게 퍼져나갔다. 방송은 그 목소리들을 전국 방방곡곡으로 실어 날랐고 곳곳에서 함께 노래했다. 여기서는 아무도 소외당하지 않고, 여기서는 모두가 뭉쳐 있었다. 우리가 형제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민족이 되었다는 말은 더 이상 빈말이 아니었다.

(나) 동물 중에서 돼지가 제일 똑똑하다는 건 다들 인정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동물들을 가르치고 조직하는 일은 자연스레 돼지들의 몫이 되었다. 농장 돼지들 중에 단연 뛰어난 지도자는 두 마리 젊은 수돼지 스노볼과 나폴레옹이었다. 돼지들은 영리해서 매번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해결 방법을 생각해 냈다. 돼지들은 직접 일은 하지 않는 대신 다른 동물들을 감독하고 지휘했다. 아는 게 많았기 때문에 돼지들이 지도 역할을 맡는다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해 여름 내내 농장 일은 시계처럼 돌아갔다. 동물들은 일찍이 상상도 못했을 만큼 행복했다. 입에 넣는 먹거리는 그지없이 달콤했다. 스노볼은 다른 동물들을 모아 이른바 ‘동물위원회’라는 걸 여러 개 조직했다. 그는 암탉들로 ‘달걀 생산위원회’를 만들고 암소들을 모아 ‘깨끗한 꼬리 동맹’을 조직했다. 읽고 쓰는 법을 가르치는 학습반도 만들어졌다. 가을이 되자 농장 동물들은 거의 모두가 조금씩 문자를 깨치게 되었다.

돼지들로 말하면, 읽고 쓰는 것이 이미 완벽한 수준이었다. 개들도 읽기는 썩 잘했지만 일곱 계명 외에 다른 것을 읽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어미말 클로버는 알파벳까지는 배워 깨쳤으나 단어들을 조합해 낼 수가 없었다. 복서는 알파벳의 D까지 깨치고는 더 이상 나가질 못했다. 흰 암말 몰리는 자기 이름에 들어가는 여섯 철자(Mollie) 외에는 배우기를 거부했다. 그 밖의 농장 동물들은 알파벳의 첫 글자 A 이상으로는 나가질 못했다. 또 알고 보니 양, 암탉, 오리 등 머리가 둔한 동물들의 경우는 일곱 계명조차도 다 외우지 못한 상태였다.

따라서 무리를 이끄는 돼지들이 우선 건강해야 한다는 것의 중요성은 너무도 명백해 보였다. 그렇게 해서 우유며 바람에 떨어진 사과뿐만 아니라 나중에 익은 사과들까지도 모두 돼지들의 몫이어야 한다는 데 아무 군말 없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다) 영리한 무리는 어떻게 일을 할까? 개미, 벌, 흰개미 같은 사회성 곤충은 문제 해결 과제를 많은 개체에 분산시킨다. 책임자 같은 것은 없다. 남이 무엇을 하고 있다고 말해주는 자도 없다. 대신 그런 집단의 개체들은 예측할 수 없는 무수한 방식으로 상호 작용을 한다. 그러다 보면 개미 군체(群體)가 가장 가까이 있는 씨앗 더미를 찾게 해주는 어떤 패턴이 출현한다. 움직임이나 의미의 전환점이 나타나는 것이다.

개미집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조직과도 다르게 운영된다. 거기에는 어떤 유형의 사장도 경영자도 관리자도 없다. 여왕은 명칭은 고상하지만 아무런 권위도 행사하지 않는다. 그녀가 하는 일은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알을 낳는 것뿐이다. 정찰자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풀밭으로 나갈 때, 분대장의 명령을 받는 것이 아니다. 개미집 유지 관리자들이 통로를 수리할 때 어떤 설계도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새로 노동력을 제공할 젊은 개미들은 교육장에 앉아서 조직의 목표를 암기할 필요가 없다. 그래도 군체는 잘 돌아간다. 그들이 일하는 방식이 산만해 보일지 몰라도, 그런 방법으로 그들은 도로망을 구축하고 정교한 집을 짓고, 대규모 공격을 수행하는 등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다. 어떤 지도자도 작전 계획도 임무 의식도 없이 말이다.

(라) 가장 이상적인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하려고 시도했던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 아테네의 인구는 기껏해야 20만~25만 명 정도였고, 그 중에서도 여성과 노예를 제외하고 시민으로서 민회에 참석할 자격이 있는 성인 남성은 약 3만 명에 불과했다. 그 3만 명은 한 달에 서너 번 정도, 매년 40회씩 모여 하루 동안 정치를 했다. 1만 4천 명이 앉을 수 있는 광장이 그들이 정치를 위해 모인 장소다. 한 번에 모인 사람은 5천~1만 명 이상이었다. 대부분은 자발적으로 모였지만, 일부는 저잣거리에서 노니는 사람들을 집행관들이 동아줄로 묶어 소 떼 몰 듯 끌고 와 광장을 채웠다. 참여자에게는 하루치 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이 지급되기도 했다.

민회에서 각자의 발언 시간은 제한이 없었고 발언자 수에도 제한이 없었다. 몇 사

람의 발언이 끝나면 서기가 제기된 의안을 읽고 의장이 의안 채택의 절차에 들어가
거수투표로 의안을 가결시키거나 부결시켰다. 이런 절차가 몇 번 되풀이되면 그날 결
정해야 할 의안이 모두 다루어졌다. 의안은 법안의 의결, 전쟁의 선포, 조약에 대한
인준, 공직자 통제, 군사령관 선출 등과 관련된 것이었다. 회의는 대부분 오전 중에
끝났다. 하지만, 이와 같이 1만 명 이상에 이르는 참가자가 하루에 25회 이상 의안
채택을 위해 거수를 했다면 의안 채택 절차만 해도 6시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거수자의 수를 정확하게 계산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민회가 오전에 끝나면 오후에는 아테네 시내의 아고라에서 평의회가 열렸다. 행정
부인 평의회는 시민 중에서 추첨한 5백 명으로 구성됐고, 매일 회의를 열어 국사를
처리했다. 의원의 임기는 1년이었고, 의장은 매일 아침 뽑혔으며, 평의회 의장이 민회
의장도 겸했다. 따라서 대통령과 국회의장을 겸하는 중책의 목숨이 겨우 하루살이였
던 셈이다. 평의원은 모든 사회계층에 걸쳐 공평하게 구성되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쉽지만 사실은 부유층에 편중됐다. 민회에 참석하는 것과 달리 평의원이 되면 1년간
매일 출근해야 했으므로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마) 제 4의 스크린은 이제 시작된 세상을 말한다. 인터넷은 더 이상 가상의 세상
이 아니다. 현실 자체가 완전히 가상 세계와 통합되는 모습이다. 산업의 모든 서비스
및 제품들은 기본적으로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어 있다. 인터넷이나 네트워킹이란
개념을 빼놓고서는 그 무엇도 상상할 수가 없다. 사람들은 누구나 가상 세계를 통해
서로를 연결할 수 있다. 사람이 원할 때 디지털 세상에 접속하는 형태가 아니다. 이
세상 자체가 디지털과 완전히 융합되어 현실 세계에 디지털이 입혀진 형태를 떨
만 아니라, 가상 세계의 모습이 현실에도 그대로 동기화되어 있다. 자신의 삶은 완전
히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연결된다. 삶이 그대로 기록되고, 그대로 공유되는
라이프 로그(life log)의 시대인 것이다. 트위터가 지금 세계를 빠른 속도로 연결하고
있다. 그러나 트위터와 같은 서비스들은 이제 펼쳐질 새로운 소통 세계의 시작에 불
과하다. 소통의 비용이 제로(zero)에 도달하여 인류는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그 누구
와도 쉽게 연결되고 소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집단역학 연구에서 각 집단들은 대체적으로 사회
적 동조라는 전형적인 현상들을 보인다. 예를 들면, 그러한 현상의 일부는 다른 의견
을 가진 개인이 집단의 합의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경우 언제라도 응집력이 강
한 집단의 구성원들에 의해 제기되는 강력한 사회적 압력을 받게 된다는 사회심리학
적 실험 결과와 일치한다.

소수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다수의 의견에 의해 결정된 판단에 동조함으로써 만장
일치를 이루고자 하는 환상을 공유한다. 이러한 증상은 논의 과정에서 침묵을 지키고

있는 개인들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잘못된 가정으로부터 기인한다. 집단 내의 합의점을 도출하려는 노력은 집단의 구성원 중 명백한 반대의견이 나타나지 않는 한, 구성원의 비판적 사고나 사실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가로막아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없도록 만든다.

미국의 쿠바 침공과 같은 중요한 행동 계획 - 이후 처참한 실패로 귀결된 - 을 결정할 때, 구성원들이 그들 집단 내부의 반대에 부딪히는 것은 매우 곤혹스러운 일이다. 특히, 만약 그 선호하는 계획이 너무 위험해서 실행 가능성에 대한 의견의 합일을 도출하기가 어렵다면 더욱 그렇다. 이러한 의견의 불일치는 심각한 오류에 대한 불안감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일단 구성원들의 의견합일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지면, 구성원들은 더 이상 그들의 결론에 대한 확신을 갖기 어렵게 된다. 그러면, 개별 구성원들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불확실성이 있다는 성가신 현실에 직면해야 하고, 그 위험이 정확히 얼마나 심각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정보를 부지런히 찾아 나서야 한다. 이것이 냉정하고 비판적인 사고를 수행하는 집단이 겪어야 하는 유쾌하지 못한 결과들 중 하나이다.

그와 같은 불유쾌한 상태를 피하기 위해서, 구성원들은 종종 위험부담이 큰 행동을 결정하려고 할 때 잠재적인 의견 불일치가 표면화되는 것을 제지하는 경향을 보인다. 집단의 지도자나 구성원들은, 합일되지 않은 이슈들의 원인을 탐색하는 대신에, 합의를 이루고자 하는 범위 내에서만 의견을 나누며 서로를 지지하고자 한다.

당시 백악관 특보였던 슐레진저는 “우리의 회의는 모든 사람의 의견 일치를 가정하는 묘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는 그러한 합의가 다수의 참가자들이 자신의 추론을 표명하지 않았거나 개인이 막연한 의혹을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지될 수 있었던 환상이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에 나타난 집단의 특성을 비교하여 하나의 완성된 글로 작성하시오. [30점, 530~550자]

[문제 2] 제시문 (다), (라), (마)의 논지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집단 의사결정 모형을 추론하고, 이 모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제시문 (바)의 논지에 근거하여 설명하시오. [40점, 530~550자]

[문제 3] 다음의 상황에 기초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중동에서 석유시추권을 소유하고 있는 A기업은 다음과 같은 의사결정에 직면해 있다.

- 선택1 : 75억 원에 그 권리를 다른 기업에 판다.
- 선택2 : 50억 원의 비용을 들여 직접 석유시추를 시작한다.

A기업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석유가 존재할 확률은 20%이고, 그로 인한 수입은 500억 원으로 추정된다. 물론, 실패하면 수입은 없다.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석유의 존재 여부를 더욱 정밀하게 예측하기 위하여 B지질학자를 고용할 수 있는데, 비용은 10억 원이 든다. B지질학자의 과거 기록을 분석해 보면, A기업의 사례와 조건이 유사한 경우 석유가 존재한다고 예측할 확률은 30%로 추정된다. 그가 석유가 존재한다고 예측하는 경우 적중률은 60%, 존재하지 않는다고 예측하는 경우 적중률은 90%이다.

[3-1] A기업이 B지질학자를 고용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어떤 의사결정이 이익의 기댓값을 최대화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15점]**

[3-2] A기업이 이익의 기댓값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B지질학자를 고용해야 할 것인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시오. **[15점]**

- 끝 -